

# 진관사 국행수륙대제 학술세미나

## ‘진관사 국행 수륙대제의 조명’

### 치 사

진관사 개산 천년을 맞이하여 제 3회 수륙제 학술세미나를 개최하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수륙제는 고려시대부터 나라의 안녕과 민생의 평안을 기원하며 국행으로 거행된 전통 민속의례입니다. 불교의례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재회(齋會)인 수륙제는 어언 1000년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진관사 수륙제는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의 명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조종선령(祖宗仙靈)과 순국충열(殉國忠烈), 희생당한 고려 왕씨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수륙사(水陸社)를 설치하였던 것입니다. 이로부터 봄·가을마다 수륙대제를 장엄하게 베풀어 온 사찰이 바로 진관사입니다.

2010년은 경술국치 100년과 한국전쟁(6·25) 60년이 되는 해이며 천안함 사건 등으로 온 국민이 슬픔과 불안에 빠져 사회적 어려움을 겪은 해입니다. 예로부터 수륙제는 사회의 정치적 갈등을 치유하고 정신적 화합을 위해 설행되었습니다. 때문에 올해 설행되는 진관사 국행수륙제가 갖는 역사적 의미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진관사 수륙제의 가치는 장구한 역사성뿐만 아니라, 예술·음악·미술·연극·문학적 가치가 응집된 종합예술입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자랑스런 무형문화재이며 인류가 함께 지켜나가야 할 세계문화유산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무관심으로 인해 많은 무형문화재들이 사라졌고 지금 이 순간에도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문화가 곧 국가 경쟁력인 21세기에는, 문화 콘텐츠를 어떻게 개발시켜 나가느냐에 따라 국가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으로 우리의 무형 문화재를 보호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열리는 ‘진관사 국행수륙재의 조명’ 학술세미나는 향후 수륙재 연구의 초석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한 사찰에서 600년의 전통을 면면히 이어 의례문화를 지켜왔다는 것은 실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수륙재에 대한 전통 계승과 원형 복원을 위한 노력 안에는 주지스님 이하 신도여러분들의 하나 된 원력이 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원형을 복원하려는 노력이 이번 학술세미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학술제를 위해 발표와 토론 및 연구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 번 진관사 국행수륙재 학술세미나 개최를 축하드리며 학술세미나가 원만히 성취되길 기원합니다.

불기2554년 10월 6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